



제대로 믿고 알고 행하면 행복 성적표 ‘만점’

학명 스님은 ...

1960년에 출가했다. 1976년 대한불교 조계종 남한산 성불사를 창건했다. 전법과 사회사업에 대한 원력으로 벽담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이웃 주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전개하며 군법당 구치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법회를 열고 있다. 매년 <금강경> 강좌를 실시하며, 하남시 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선사들의 숨은 이야기> <우리말 천수경> <삼세인과경> <금강경 이야기> 등을 펴내 문서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지장경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계곡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능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산이 클수록 등산로도 많다. 성불의 길도, 불국토를 이루는 길도 중생의 수만급 다양하다. 중생 각자가 불성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여서 각각의 중생이 각자 인연을 따라 부처의 길을 뒀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르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된다. 목적은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리느냐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불자가 부처님께 귀의해 배우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경, 염불, 참선, 사경, 절(拜) 등의 정진으로 산을 오르기도 하고 봉사활동, 복자사업, 캠페인 전개 및 동참, 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으로 산꼭대기의 시원한 바람을 이웃에 전하기도 한다.

남한산을 오르는 여러 길 가운데 서울의 마천동에서 오르는 길은 평일에도 등산객으로 붐빈다. 도심과 산의 경계에 성불사가 있다. 불도(佛道)를 배우는 등산과 불법(佛法)을 세상에 전하는 하산을 동시에 행하는 도량이다. 1976년 성불사를 창건한 학명 스님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수행과 전법의 뿌리로 선포했다.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절에 와서 함께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때 기도와 정진이 힘을 합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각각의 사정이 있지만 항하는 목적지는 같은 것처럼, 같은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공동으로 갖는 원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와서 각자 마음대로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절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사에서는 '바르게 믿고(信) 바르게 알고(解) 바르게 실천하고(行) 바르게 깨닫자(證)'는 것을 공동의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명 스님은 성불사의 사시(寺詩) 즉, '신해행증'을 구체화하는데 한 순간도 방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자들의 지침이 되고 모범이 되어 기도정진과 각종 나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스님은 '신해행증'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듣 강조했다.

"신(信)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불사에 시주하고 발원하여 기도불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믿음이 중요하고 회사나 단체에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믿음이 사라지면 불행해 집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도의 근원이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 혜안(慧眼)이 있어야 합니다. 혜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소한 관계에서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의 유기적인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믿음에도 함정이 있다. 허방다리를 밟으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허방다리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다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명 스님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解)는 바르게 아는 것인데 지혜(智)로 가는 길입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릇된 견해는 대개 아집(我執)에서 비롯됩니다. 아집을 버리고 나면 사물이나 어떤 일의 이치가 보입니다. 믿고 있으면 웃고 세탁기에 들어가면 빨래라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어찌어찌한 천으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재단하고 마름질하여 만들었다는 것까지 분석해 냅니다. 그냥 웃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물건에도 이렇게 많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웃이라는 물건의 참모습일까요? <금강경>에서

는 '소위 불법이란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 우선 집착을 버려야 하고 다음으로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여 철저한 깨달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아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맹신(盲信)이나 미신(迷信)에 떨어집니다. 바른 믿음을 지켜 주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깨달음은 각종 상(相)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는 바로 지혜와 지혜의 종교입니다. 안으로 나를 닦고 밖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명은 자연스럽게 바른 실천으로 넘어갔다.

"행(行)은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法)에 의거해 법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혼자 알고 즐기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그 오묘한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한 법의 귀중함을 상징하면서 그 진리는 대중에게 회향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인 겁니다. 부처님께 한량없는 자비심이 없었다면 불교도 없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정진과 나눔의 생활화로 '늘 깨어있는 도량' '진리는 세상에 회향될 때 참 가치 보이는 것'

고 공덕의 어머니(信爲道源功德母)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좋게 하는 믿음과 나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속아 그 실체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믿었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좋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x 5cm (중) 5 x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천도
장량장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상화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사상화로 (대) 26 x 16 x 10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안에서 향기 풍어 겨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항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입급계좌: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원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의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이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의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숙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숙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땀과 뽀뽀 거품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숙땀(고 60°C보다 높은 고열적 70°C이상의 '원칙의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더라도 화상 및 물집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변비약은열침,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입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급계좌: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의료일용품도 생략 합니다.